NEW SPIRIT
Mindanao, Philippines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1111 Copper Street
San Rafael Village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2024년 2월 **선교편지 제 172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에는 대가족이 옹기종기 함께 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한 집에 살 뿐만 아니라, 부모와 삼촌, 그리고 이모의 가정이 함께 살고, 본가와 처가도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년배의 사촌, 조카는 모든 부모뻘의 아들과 딸들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전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Family Reunion'이라는 최대 행사를 같이 치릅니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예외 없이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푸짐하게 파티를 즐깁니다. 지방에 있던 식구들도 올라오고, 직장도 쉬고, 심지어 주일에는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참석할 정도입니다. 집 앞에 현수막도 걸어 놓고, 같은 색깔의 티셔츠도 맞춰 입는 등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의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방치로 자녀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해맑은 모습으로 아무 걱정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어린 자녀들처럼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할 그늘이 깊게 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집에서 나와 생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 집에 서로 다른 배경의 어린 남녀가 동거를 하고 있는데도 부모는 걱정하는 모습만 보일 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울타리에서 떨어져 힘들게 사는 어린 학생들을 교회에서 품어 주려고 하지만, 정말 역부족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16살의 '조이'는 4살과 6살된 남동생을 데리고 아팔라야 예일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는 여학생 입니다.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지 못해, 이제 뒤늦게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빠는 집을 떠난 지 오래 되었고, 엄마는 밤에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두 살 위의 언니는 집을 나가 근방에서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남동생은 조이가 키우다시피 합니다. 밥도 해 주어야 하고, 잘 때도 양 옆에 데리고 잔다고 합니다.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린 나이의 조이가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조이와 두 남동생이 교회에서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를 할 때면, 정말 며칠 굶은 아이들처럼 허겁지겁 먹습니다. 먹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조이와 두 동생을 따로 불러서 밖에서 점심을 먹이곤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소화가 잘 안되어 가슴을 주먹으로 쳐가면서 먹습니다. 입으로는 밥을 먹고, 코로는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풍족한 한 끼 식사가 아이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이의 집을 심방하여 어린 자녀의 어머니를 만나 교회 출석을 권유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막 피어 오르는 조이와 두 동생이 교회 밖으로 떠 밀려 나가지 않도록, 자격 조건은 아직 안되지만 장학 사역의 일원으로 포함시켜서 좋은 학생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이 세상이 품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작년 10월부터 필리핀 민다나오 섬 디고스에 '마띠 은혜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에 이어 세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으로 매우 익숙하게 건축을 진행할 줄로 예상 했는데 여전히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건축 작업자들의 독특한 작업 방식과 생활 습성으로 인해서 전전긍긍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낙후된 작업 방식과 '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저의 역할은 시시콜콜한 잔소리 꾼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작업모를 착용해라', '장갑을 껴라', '지붕 작업을 할 때는 안전 벨트를 작용해라' 등과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말할 때 뿐입니다.

더욱 더 생소하고, 복잡한 문제는 수고한 댓가로 지불하는 주급에 관한 것입니다. 일을 마친 후 토요일에 정확하게 주급을 주는 것은 사무적으로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얼마나 변수가 많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선 '일'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 6일을 일하기로 되어 있지만, 주중에 하루 정도는 예고도 없이 결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에 출근해서 점심을 먹고 바쁜 일이 있다며 일하는 도중 퇴근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즉, 작업자들마다 일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주 6일을 온전하게 일하는 작업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5.5일, 4,75일을 일하는 작업자들도 있습니다. 주 6일 출퇴근을 명확히 하라고 하면, 저는 융통성이 없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매주 지급하는 주급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가불'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사람도 한번에 주급 전체를 받아가는 작업자가 없었습니다. 이곳 문화에서는 주중에 주급에서 '가불'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일에 주급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만큼 가불을 하는데, 꽤 복잡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급 전체가 100이라면, 50을 가불하면 계산하기가 편하겠는데, 35 또는 47과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을 다양하게 가불을 합니다. 더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가불 금액을 작업자 본인이 결정하기도 하지만, 주초에 작업자의 부인들이 저에게 미리 가불 금액을 알려 오기도 합니다. 남편을 볼모로 급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수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급에 대한 각종 내규(?)를 정했지만, 두 주도 못 가서 제자리로 돌아 옵니다. 내규를 강력하게 고집하면, 필리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엄격한 한국 사람이라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세번째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작업자들간 다툼과 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19명의 작업자들이 오전 7시 30분에 교회 마당에 모여,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후 5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야간 당직자 2명이 건축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현장을 지킵니다. 오래전 디고스 예일교회 건축 중, 하루 작업 일정이 끝났음에도 몇몇 작업자들이 건축 현장에 남아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다툼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엄격한 한국 사람이라고 불평을 해도, 그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를 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까닭은, 작업 책임자로 교회 건축의 목적을 잘 알고, 또한 저를 잘 이해하는 디고스 예일교회 교인을 세우고 철저하게 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작업 환경 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작업자들 사이에서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게 공사가 진행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벌써 예배당, 친교실, 교육실의 벽과 천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지붕과 바닥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이 너무 취약하여,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왕상 6:7)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은혜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